

# 대한 양계협회

소식

## 제 9 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 대회 개최

6월 10일 ~ 11일까지 강화에서

전 양계인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본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 9 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가 오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강화에 있는 (사)한국 산업교육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양계인이 참석하여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벌어질 이번 대회에는 최근 UR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양계산업을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로 과거의 잘못된 인습,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출하여 전 양계인이 하나되어 협회를 중심으로 총단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광범위한 의견교환도 있을 예정이다.

## 분과위원회 개최 육계



본회 육계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충남 공주군에 있는 동학산장에서 '94년도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 기간에 열렸다.

대체적으로 하이 900원선, 세미 1,100~1,200원선으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생추가격은 300~350원선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많은 입추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은 다소 관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호흡기성 질병이 다소 발생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전망은 어떤 특수가 작용하지 않은 한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 종계

본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4월들어 초생추가격이 폭락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입추열기로 보아 초생추가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4월 하순경부터 병아리 생산이 다소 많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전망은 복경기를 대비하여 현재 입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한 추세이며, 지난 3월에 입식된 다수의 실용계가 이달 하순경부터 하이생산에 가담하여 육계값이 약세로 돌아설 경우 초생추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추세가 6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였다.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에서 부활절과 각급학교 소풍 등으로 인해 계란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비량은 그리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근 잔알 생산량이 많음에 비추어 볼때 4월 말경부터 이 계군들이 큰알생산에 본격가담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5월부터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노계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당겨 노계도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 채란

### 중국양계산업 시찰단 모집

본회는 UR농산물 협상이 일괄타결되어 양계산물의 수입개방이 본격화 됨에 따라 수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양계산물 주요 수출국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양계산물이 전면 수입이 개방되는 시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코자 다음과 같이 시찰단을 모집하여 파견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다 음 -

1. 참가대상 : 양계인 및 관련 종사자
  2. 예상인원 : 20명 내외
  3. 시찰지역 : 북경, 연길, 장춘, 백두산, 천진
  4. 시찰내용 : 중국 육계 및 채란업 현황과 대한수출가능성 분석
  5. 시찰기간 : '94. 5.29~6. 5(7박8일)
  6. 참가비 : 1인당 1,450,000원(전액자부담, 여권, 비자수수비 별도)
  7. 신청기간 : '94. 5.14일 까지
  8. 연락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전화 (02)588-7651/4 편집부)
- \*참가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파견하며, 이하일 경우 신청자와 협의 후 같은 일정으로 별도 진행코자 함.